

존경하는 장애인탁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길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여러분들의 따뜻한 한 해의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탁구협회와 함께했던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애인탁구협회와 함께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국제 심판으로 활동한 지 43년이 되었으니, 심판 활동의 절반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22년 동안 어울려 함께했던 장애인 선수분들, 그 가족분들, 지도자분들, 협회를 거쳐 가신 임원님들, 협회 관계자분들, 선·후배 심판님들,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헌신과 사랑,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1964년 청소년 대표 선수로 시작한 탁구와의 인연은 실업단에 있으면서 시니어 대표 선수로, 한때는 선수 육성을 위한 지도자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서 심판위원장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로서 힘듦과 좌절감, 승리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고, 때로는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60여 년은 탁구와 함께한 삶이자, 여러분과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기억과 함께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장애인탁구심판위원장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로 혹여나 불편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는 새로운 심판위원장과 협회와 모두 힘을 합쳐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장애인탁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의 빛나는 미래, 건강과 행복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8일

김길자 올림